

월드시리즈 관중석에 등장한 BTS



▲ 사진=트위터(Cut4)

메이저리그(MLB) 공식 SNS 채널인 'Cut4'가 지난 20일,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월드시리즈 1차전을 앞두고 글로브 라이프 필드의 관중석 맨 앞자리에 등장한 방탄소년단(BTS) 사진을 공유했다. 올해 월드시리즈는 이날부터 LA 다저스와 탬파베이 레이스가 텍사스주 알링턴에 위치한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맞붙고 있다.

'Cut4'가 올린 관중석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사진이 그려진 '가짜 관중' 패넬이 자리잡고 있다. 이 사진에는 슈가와 뷁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패넬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을 공유했던 'Cut4'는 "와 이거 봐, 방탄소년단이 월드시리즈에서 환히 빛나는

자리(dynamite seat)를 차지했어."라는 멘트를 남겼다.

다저스 구단의 SNS도 같은 날 이 사진을 찍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다저스는 "우리는 이미 방탄소년단이 누구를 응원하는지 알고 있다."면서 "당신은 누구를 좋아하나. 우리는 윤기(슈가)다."라고 전했다. 슈가는 지난해 5월 다저스타디움을 방문해 류현진의 완봉승 경기를 지켜봤다.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1,000여 명의 관중만 입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빈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가짜 관중 패넬을 설치했다.

모모랜드, 싸이와 손잡고 11월 컴백



▲ 모모랜드, 사진 = MLD엔터테인먼트 제공

걸그룹 '모모랜드(MOMOLAND)'가 가수 겸 프로듀서 싸이(PSY)와 손잡고 컴백한다.

지난 19일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에 따

르면 싸이는 11월10일 모모랜드의 데뷔 4주년을 기념해 선보이는 신곡에 싸이가 작사가로 참여한다.

싸이는 "모모랜드는 흥이 나는 음악을 더욱 신나게 잘 표현하는 결이 잘 맞는 후배로 이번 신곡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데모곡을 들어본 후 곡이 너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작사 작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MLD 관계자는 "싸이의 작사 참여로 모모랜드의 신곡이 더욱 유니크해짐과 동시에 완성도를 높였다"며 "기존의 히트곡 '뽀뽀'와 'BAAM'의 뒤를 잇는 글로벌 히트곡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모랜드는 2016년 데뷔한 모모랜드는 2018년 폐가 히트곡 '뽀뽀'으로 인기 그룹 반열에 올랐으며 미국의 에이전시 'ICM 파트너스'와 계약을 맺고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슈퍼엠, 미국 CBS 심야 토크쇼 출연

보이그룹 슈퍼엠(SuperM)이 미국 CBS 인기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에 첫 출연했다.

슈퍼엠은 지난 23일 '제임스 코든쇼'에 출연해 신곡 '원'(Monster & Infinity) 무대를 화상으로 선보였다.

'원'은 슈퍼엠이 최근 발매한 정규 1집 '슈퍼 원'의 타이틀곡이다. 앨범 수록곡 '몬스터'와 '인피니티'를 합쳐서 만든 하이브리드 리믹스(Hybrid Remix) 곡으로 서사적인 곡 구성과 트랜지션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인상적이다.

앞서 슈퍼엠은 앞서 미국 NBC의 인기 토크쇼 '엘렌 드제너러스 쇼'와 ABC의 간판쇼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미국 시청자들과 만났다.

한편, 지난 9월25일 발매된 '슈퍼원'은 발매 첫 주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2위로 진입했다. 지난 18~24일자 차트에서는 57위를 차지하며 3주 연속 차트인을 기록하고 있다.



▲ 보이그룹 슈퍼엠, 사진=SM엔터테인먼트

숫자퍼즐 정답

5	6	8	4	7	9	1	2	3
7	9	2	3	5	1	4	8	6
1	3	4	6	2	8	9	7	5
3	7	6	8	9	2	5	1	4
8	4	1	5	3	7	6	9	2
9	2	5	1	6	4	8	3	7
6	5	9	7	8	3	2	4	1
2	1	3	9	4	6	7	5	8
4	8	7	2	1	5	3	6	9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